

AUTHOR 윤중환

TITLE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한 고찰

IN 광신논단, Vol.5 No.1(1993)

# 개혁주의 성경관에 대한 考察 (표준 새번역 성경비판을 위한 고찰)

윤종한

學校法人 光神學院 長老會光州神學校 교의신학, 교수

2-637-9301-03

pp.83-104

표준새번역 성경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한국 교회가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표준새번역 성경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표명을 하고 있는 자들이 광주개혁신학연구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규오 목사님은 표준새번역 성경이야말로 물고기들에게 때 죽음을 물고 오는 강물의 오염처럼 한국 기독교를 크게 오염시키고 표준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 교회는 급속히 서구 교회의 폐단을 답습하여 쇠퇴의 길로 갈 것을 예고하였다. 광주 개혁신학연구원은 표준새번역 성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표준새번역 성경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성경관에 귀결되는 것으로 본다. 표준새번역 성경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성경관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새번역 성경을 왜 비판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그같은 비판과 반대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 관에 대한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표준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타당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또한 평가의 척도를 규정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의 성경관이 무엇인가 또 성경적 타당성과 교회사적 전통성이 있는가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표준새번역 성경 자체에 대한 비판은 광주개혁신학연구원 교수진의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 一. 성경관과 세계관

우리가 성경관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실재로 대하는 것은 성경관 이상의 그 무엇이다.<sup>1)</sup> 우리는 성경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견 해와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성경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성경관에 대한 견해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경관에는 사도적 전통을 고수하는 개혁주의 성경관이 있는가 하면 계몽주의 성경관, 낭만주의적 비합리주의의 성경관, 자유주의 성경관, 양식 비평적 성경관, 신정통주의 성경관, 고등 비평적 성경관, 신복음주의 성경 관, 실존주의적 성경관, 로마 카톨릭 성경관, 과정신학의 성경관, 해방신학의 성경관 등등 수 많은 성경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수 많은 성경관 가운데서 어떤 성경관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교할 것이냐, 어떠한 신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케 하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지면 관계로 이들 성경관들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광주개혁신학연구원이 개혁주의 성경관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몇 개의 성경 관을 예시적으로 비판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계몽주의 성경관을 생각하여 보자. 계몽주의 사상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데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싹이 튼 운동이다. 계몽주의 사상은 17세기 18세기의 과학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적인 것은 합리적이며 합리적인 것은 자연적이라는 신념을 가졌다. 이같은 계몽사조는 성경에 근거한 계시종교를 거부하고 창조 질서에 나타난, 이성 에 의해 만인에게 알려진 자연종교를 선호하였다. 인간은 특별계시를 믿을 필요가 없고 자연과 이성을 토대로 하여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자연종교를 수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성만이 궁극적 권위였다. 이 이성이란 권위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척하였다. 이같은 계몽사조에 의하면 성경의 영감성은 인정될 수 없고 결국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면 삼위일체 속죄 부활 등등의 교리는 한낱 미신으로 간주될 뿐이다.

계몽주의 사조는 현대신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신학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관은 계몽주의 사조의 성경관이 다양한 의상을 걸치고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신학자들이 이성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 초자연 계시를 부인하는 것, 성경의 신적 영감을 부인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거부하는 것, 성경계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 신구약 성경은 오류이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 성경에 근거한 모든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인 등등은 그 뿌리를 계몽주의 사조에 두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사상적 배경을 가진 계몽주의 사조와 같은 사조에서 생긴 계몽주의 성경관을 결코 수납할 수가 없다. 지면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피하지만, 요컨대 계몽주의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자가 생각하는 인간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자의 성경관을 생각하여 본다. 자유주의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있다(Contain)고 생각한다. 성경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완성된 것도 아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그렇게 신성시하지는 않는다.<sup>2)</sup>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경험, 혹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기독교의 권위의 소재를 찾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신 계시의 산물로 보지 않는다. 예술가들이 고도의 영감을 스스로 받아 예술품을 창작하듯이 고도의 종교적 영감을 받은 종교적 천재들이 기록한 작품이 성경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의하면 고도의 영감을 받은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타의 부분은 인간의 말씀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면 성경은 오류가 많으며 특히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기독교의 교리와 신조는 자연히 배척되고 만다.

이같은 자유주의적 성경관을 우리는 수납할 수 없다. 자유주의 성경관은 현대과학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계시신학을 버린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시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축소되고 인간의 주권은 확장된다. 하나님은 성경저자들을 고양시키시되 오류가 개입함을 방지할 수 없는 신이 된다. 또한 성경 중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부분이 인간의 말씀인가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으니 인간의 이성 만능주의에 빠지거나 인간의 자의적 주관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신관, 인간관은 용납할 수 없다. 이같은 신관,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 성경관도 우리는 물리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을 살펴보자. 신정통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운동으로 191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영향을 끼친 신학 사상이다. 칼 바르트가 대표적인 학자가 된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현현하는 세가지 형태가 있다. 궁극적 차원에서 계시된 말씀은 삼위의 제2위인 로고스와 동일하다. 성경은 계시이나 직접적이 아니고 계시된 말씀에 향한 증언으로서 역 할한다.<sup>3)</sup>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적 만남을 위해서 사용 하실 때 계시가 된다. 성경은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사람들과 만나신다. 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become)고 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증언이므로 성경의 말들(words)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정통주의자들의 중대한 실수이다. 그것은 성경우상 숭배(bibliolatry)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로 인간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기에 유오하다고 한다. 역사 지리 자연 과학 등에서 유오하지만 신학과 윤리에 있어서도 유오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오한 성경을 통해서도 인간을 만나주신다.

신정통주의의 성경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신정통주의 성경관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도 무력한 하나님이 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무오한 계시를 주실 수 없거나 유오가 개입함을 방지 하셨기 때문이다. 또 신정통주의에 의하면 성경은 너무 주관적인 책이 되어 버린다. 성경은 인간이 개인적 실존적 결단을 내리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에 의하면 인간이 실존적 결단을 내릴 때 그 때 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니 결국 성경이 인간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경의 표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

국 인간의 주권성과 주관성이 성경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이같은 성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실존주의 성경관을 약간 언급하고자 한다. 실존주의자들은 헤겔적인 추상적인 사상 체계에 반기를 든다. 실존주의는 일상의 필요와 관심을 지닌 실존하는 인간에게 역점을 두며 주체적 진리를 추구한다. 실존주의는 죽음, 유한성, 죄책, 고난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입장에서 신 학자의 대표로 볼트만을 들 수 있다.

볼트만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현대 세계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은 신화라고 한다. 따라서 볼트만은 성경이 실존적 의의를 가지려면 성경 속의 신화를 비신화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렇게 비신화화 할 때 현재의 결단을 추구하는 "종말론적"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육신 부활 등은 과거의 어느 때에 있었다고 말력에 표시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실존적 결단을 내리면 나에게 "종말적"사건이 된다. 이같은 입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안에서 몇가지 성경관을 열거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성경관을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관 자체도 잘못이려니와 그같은 성경관이 내포하고 있는 신관 인생관 세계관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의 성경관을 가지면서도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참 모습의 인간과 세계를 보여주는 성경관은 무엇인가.

## 二. 개혁주의 성경관

광주개혁신학연구원은 개혁주의 성경관 위에서 있다. 갈수록 이같은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적어 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 광주개혁신학연구원은 이 성경관 위에 굳게 설 것을 기원한다.

개혁주의 성경관은 유기적 독자영감과 무오성을 그 핵심으로 하며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무오한 유일무이의 법칙으로 본다. 왜 이같은 성경관을 담대히 가질 수 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 성령이 자증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증하고 있으며 사도적 전통이 이 성경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성경의 자증

성경은 유기적 완전 독자 영감의 책임을 그리고 무오함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이같은 성경 자체의 증언에 입각하여 성경관을 수립함에 대하여 "순환논법"이라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비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관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성경 자체의 증언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경도 판단받기 위하여 먼저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증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수히 주장하고 있다. 성경에도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등과 같은 구절은 쉽게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10이 다윗이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다(행 2:25-31).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성경관은 우리의 성경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그 모든 진술과 주장에 있어서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서 까지도 오류가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 예컨대 마태복음 19:4-5에서 결혼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문자적 역사적 실제 인물로 언급하셨으며 창세기 2:24을 하나님이 직접하신 말씀으로 인용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35에서 아벨의 역사를 실제 역사로 인정하셨다. 마태복음 24: 38-39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셨다. 이같은 사실들로 볼 때 예수께서도 구약성경이 신학, 역사, 과학의 분야에 관하여 단언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소위 적응이론(Theory of accommodation)으로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예수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언급하실 때 구약의 여러 책의 저자와 저작 연대를 실제 알고 계셨으며 따라서 예수는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간 역사적 과학적 실수까지도 실제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잘못된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에 맞추어서 그것들이 사실인양 말씀하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는 모세가 모

세오경을 쓴 것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그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므로 마치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처럼 이야기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그 당시 히브리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므로 마치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같은 적응이론은 결코 수긍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본체이시요 그 입에 꾀사가 없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불의한 것은 책망하시고 거짓된 것은 미워하셨다. 이러한 분이 짐짓 모른 척 하면서 거짓을 용납할 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도 폐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도 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다(요 10 : 34-36, 시 82 : 6과 요 12 : 34) 또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의 일점 일획은 천지보다 귀한 것이다.

사도들의 성경관도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베드로는 바울의 기록들을 "성경"으로 언급하였다(벧후3:16).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를 구약성경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말하였고(엡 3:5) 히브리서 기자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와 자기의 말을 대등하게 열거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도들의 성경관을 대변하는 중요한 두개의 성구가 있다. 디모데후서 3 : 16과 베드로후서 1 : 19-21이 그것이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θεοπνευστος이다.<sup>5</sup> 이것은 θεος(하나님)과 πνευστος(숨쉬어진)이라는 말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희랍어에서 끝단어가 -ros로 끝나면서 θεος와 복합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수동적이다. 그러므로 θεοπνευστος는 "하나님에 의해 숨쉬어진"으로 번역해야 올바른 것이다. 왜 바울이 이같이 말하는가 그것은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분명히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숨쉬어지도록 하신 분은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이므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숨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21의 내용도 사도들의 성경관이 무엇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에 의하면 예언은 인간의 뜻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인간적인 것에 그 기원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성령에 의하여 운반되어진"이란 뜻이다.<sup>6</sup> 누가 어떤 물건을 나를 때 선택되고 옮겨지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의 원천은 하나님이며 성령에 의하여 운반되어진 사람만이 말씀을 구사하는 동안 그는 수동적이고 하나님은 능동적이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후서 1:19-20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실을 말씀한 다음 예언 곧 구약성경은 그 보다 더 확실한 증거라고 하였다. 조금만 체험을 하여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체험위 주의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체험보다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다.

## 2) 성경의 증거에 의한 성경론 정리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그 구절이 빈약함으로 성경관을 정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의 증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이같은 입장에서 성경의 증언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성경 자체가 고백하는 성경관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 a)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디모데후서 3 : 16과 베드로후서 1 : 21과 같은 말씀들은 성경이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사부이신 박형룡박사는 영감을 계시구술의 영감과 계시기록의 영감으로 나누고 계시구술의 영감의 증거로서 ① 선지자의 소명(호 1:1 ; 암 1:3; 막 1:2 ; 말 1:1) ② 선지자의 과업(사 5:16; 59:21 ; 민 2:38 ; 출 7:1) ③ 선지자들의 의식(민 23:5 ; 신 18:18; 렘 1:9 ; 사 16:13-14등) ④ 예언식사 ⑤ 자기들의 사신의 몰이해 ⑥ 성령의 지도가 약속되고 수득된 것 등등을 열거하고 계시기록의 영감에 대한 증거로서 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출 17:14 ; 34:27 ; 민 33:2 ; 사 8:1 ; 30:8등) ② 인격 주체의 신적 주체어로 과도(사 10:12-13; 호 4:1-5, 6:1-4 ; 막 1:5-6; 숙 9:4-6, 12:8-9) ③ 예언 기록의 신적권 위 ④ 구약성경에의 호소 ⑤ 직접단언 ⑥ 비사도 저서들의 저서 등을 열거하고 있다.<sup>7</sup>

이같은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언을 고려할 때 성경은 영감의 책임을 고백하지 않

을 수 없다.

우리는 영감과 계시를 구별해야 한다. 영감은 계시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에 관계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영감을 통하여는 그 계시들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계시는 점진적이기에 계시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영감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영감과 조명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감에 의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보존케 하시고 기록케 하시고 이제 조명을 통하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조명에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감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다.

#### b) 성경은 유기적으로 영감됨

유기적이란 말은 무기적이란 말의 반대이다. 무기적이란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유기적이란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경기자를 생명체 그대로 100%사용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기자들을 그들의 성장배경부터 주장하시고 그들의 성격, 성벽, 재능, 교육, 수양, 용어, 문체, 그들의 환경적 영향등 모든 것을 활용하시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까닭에 죄는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셨다.

마치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심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100% 작품이면서 또한 사람의 100% 작품이다. 예수님은 신 인이시면서도 죄는 전혀 없으신 것같이 성경도 전혀 인간의 죄와 그로인한 오류가 없는 책이다. 예수님이 신비하듯이 성경 또한 신비이다.

이에 비하여 기계적 구술설이 있다. 그러나 기계적 구술설은 유지될 수 없는 이론이다. 성경 저자들은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기도 했다. 또한 성경 저자들은 자기 자신의 독특한 문필력과 문체로 글을 썼다. 저사 각자의 독특한 어휘, 구문론, 저작에 대한 목표 등이 상이함을 생각해 볼 때 기계적 구술설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역동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성경 저자들만이 영감되었고 그들의 언어는 영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동적 영감설은 유지될 수 있으니 이들은 사상은 영감될 수 있으나 언어는 영감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자를 영감할 수 있다면 그 저사가 사용하는 용어까지도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결국 역동적 영감설은 성경 중에 부분만이 영감되고 나머지는 과학적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회피하기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 c) 독자적으로 영감된 무오의 책

유기적 영감이 영감의 방식에 관한 주장이라면 독자 영감은 영감의 범위에 관한 주장이다.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고 성경은 전체가 영감되었다. 그 결과 성경은 절대 무오의 책이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7)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키기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요 10:35상) 등등의 말씀을 하셨다. 독자영감은 예수님의 성경관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무오성까지도 확신하셨다고 우리는 정당하게 추리할 수 있다. 성경무오에 관하여 오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sup>8)</sup>

권성수 교수의 요지를 요약해 본다.

먼저 가현설적 성경관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이라면 성경무오 사상은 성경이 마치 인간의 손이 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계시 보따리인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성경의 인간저자들을 무시한 성경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영감론을 고려할때 이는 부당한 생각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인적 요소가 있다. 문제는 이런 인적 요소가 반드시 유오성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성경무오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성경무오를 받아드리면 학문적 황무지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무오를 주장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왕성한 학문적 업적을

보는 것으로 해소될 문제이다.

성경무오에 관한 세번째 오해를 성경무오사상은 연역적 성경관이 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경무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일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보를 양보할지라도 연역적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무오에 관한 네번째 오해는 성경무오는 개혁주의 전통과는 상관없고 구프린스톤 학파의 새로운 고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고찰하면 해답되어 질 수 있는 질문인바 기독교 역사를 상세히 고찰하면 무오는 사도적 개혁 주의적 전통이다.

성경무오에 대한 다섯번째 오해는 성경무오사상은 형식적 성경관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기능과 형식을 엄격히 구분하여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만 하지만 이 무오의 기능이 무오한 형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성경의 기능적 무오성이 바로 교회의 주류적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프린스톤은 이 주류에서 이탈하여 성경의 무오한 형식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성을 상실하고 추상적인 신학을 조장하며 하나님의 적응행위를 오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주의에는 복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그 구원적 기능 면에서는 무오하나 과학과 역사 면에서는 유오하다는 것은 기능과 형식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원론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구원적 기능이 성경치 형식을 통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기능과 형식은 떼어놓을 수 없다.

성경무오에 대한 또하나의 오해는 과학적 도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무오론 주장하는 학자들도 성경의 내용비판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적 도구들'을 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구들'을 무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오해에 불과하다.

성경무오에 대한 일곱째 오해는 그것이 해석학적 확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오해이다. 성경이 무오하다고 해서 확실적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제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인가? 원본인가 사본인가 물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본은 우리에게 없다. 사본만이 있는데 사본은 여러 종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원본이 무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과 사본이 서로 상이한데 사본도 무오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원본의 무오성을 주장함에 어떤 실익이 있는가? 원본들이 무오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않다고 반증될 수도 없다. 결국 원본에 대한 무오성의 주장은 우리의 신앙이다. "성경은 원본상 무오하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본질을 믿는 신앙고백이다.<sup>9)</sup>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해서 유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같은 생각을 계속할 경우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기에 그도 당연히 실 수하고 범 죄하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원본이 존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본이 무오함을 믿는다.

다음으로 사본들이 무오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은 보논비평이 해 줄 수 있다. 본문비평학의 결과는 사본들의 약간의 세 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며 충분한 것이다.<sup>10)</sup> 직접 영감을 받은 것은 원본이지만 훌륭한 사본도 실질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현존 본문들이 무오한 원본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인 일체의 목적상'(for all practical purposes) 무오하고 전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간주한다.<sup>11)</sup> 신약 성경의 사본들의 차이점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불과 1/1000정도가 실제로 본문의 의미가 다른 "내용상의 차이"를 드러낼 따름이다.<sup>12)</sup> 성경무오에 사소한 난관들이 있을 지라도 그것은 마치 큰 대리석제의 전당 외벽에 약간의 사립(沙粒)이 붙어 있음과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박형룡박사는 말하였다.

### 3) 성령의 내증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관을 가지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 권위의 최종 근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성경에 대한 성령의 내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성경의 최종권위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권위도 아니요 성령의 내적 광명도 아니다. 성경의 권위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 자체의 독자적 권위에 근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대한 확신까지도 이루어 주신다. 성경에 대한 확신 이전에 이미 성경은 성경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역 사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1권7장에서 성경의 내적 증거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성경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성경은 권위 있다고 하는 우리의 확신"을 구분하고 있다.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은 성경은 권위 있다는 확신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이 신자들 안에서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인간의 합리적 논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로부터만 가능한 것이다. 성경의 내증으로 인한 확신은 어떤 것인가?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경으로 새롭게 된 이성으로 타당하게 사료됨에서 오는 확신인가? 이 경우 비록 기뻐할 수 있더라도 성경의 타당성이 이성에 의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성경의 내증은 그 이전의 것이다. 성경께서는 거듭난 이성이 성경이 타당 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에 신비하게 인쳐주시는 것이다. 거듭난 이성에게 합리적으로 사료됨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신비하게 인쳐주시고 그와 같이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따름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경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이다. 성경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주신 것이다. 그 비밀은 무엇 이 라고 설명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이 확신은 성경 님 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확신을 꺾을 수 없고 이 세 상의 그 어떤 학문도 이 확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내증은 개인적 주관적 의식만은 아 니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시는 공동체적 성격의 것이다.

필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시고 성경 자체의 성스러운 권위를 확립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성경으로 당신 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 게 해주시니 감사드릴 뿐이다. 필자의 영혼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 내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 이 또한 성경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는다. 개혁주의 성경관을 믿는 것도 하나님 의 은혜인 줄 믿는다.

#### 4) 성경관의 역사

성령의 내적 증거는 개인적 주관적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다. 성경은 유기적 촉자영감으로 되어 있으며 절대 무오하다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역사가 믿어 온 고백이다. 지면관계상 상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하고 시대별로 대략으로 개관해 본다.

##### a) 초대교회

사도 시대의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성경에 대한 무오성을 가르쳤다. 사도 시대의 교부 클레멘트는 "성령이 말한다"는 성경 귀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며 "성령을 통한 말씀" 이라고 했다.

제2세기 후반과 그 이후의 변증가들은 사도 시대의 교부들보다도 훨씬 분명하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순교자 저스틴은 하나님을 "채" (Plectrum)라 부르고 성경 저자를 "수금" (lyre)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레니우스도 "성령이 말씀하신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터툴리안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유용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며 "편지"라고 말씀하였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박식한 자는 오리겐이었다. 오리겐은 성경의 글자 의 점들까지도 영감 되었다고 생각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에" 아무 오류도 없으며 성경무오의 교리는 모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 다고 까지 말했다.

##### b)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성경무오를 믿었다. 어거스틴은 "어떤 단어나 음절 조차도 불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어거스틴은 "나는 모든 책 가운데서 정 경인 성경 하나에만 최대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 중 그 누구도 기록하는 데서는 무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 했다는 매우 확 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c)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성경의 영감 교리와 무오성을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성경권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여야 함을 말하였다. 그들이 Sola Gloria Deo, Sola Fidei Sola Gratia Sola Scriptura를 주창한 것은 상식적 이야 기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일부는 믿고 가르치며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고 말하면서 성경의 일부만 믿는 것은 마치 반지가 어느 한 군데만 잘라 지거나 깨어져도 아무 가치가 없으며 종(鐘)이 어느 한 군데만 파손되어도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루터는 어거스틴의 신앙을 물려받아 "성경의 전부는 성령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기록상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하여 성경무오를 견지하였다.

칼빈이 유기적 독자영감과 무오를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찌기 워 필드박사는 「칼빈과 성경」이란 글에서 칼빈의 위대성은 그가 성경의 권 위를 바로 깨달은 데 있다고 했다. 칼빈의 방대한 주석은 시종일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고 쓰여졌다. 성경의 권위야말로 칼 빈사상의 핵심이라고 잘 이야기 했다. 우리는 칼빈주의의 3대 특질을 하나님 절대영광, 성경 의 절대무오, 성도의 절대예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 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구프린스턴

사도적 신앙과 어거스틴, 루터, 칼빈의 신앙이 잘 고백되고 표현되어진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구프린스턴 학파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조는 신 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행위의 규칙이라고 선언하였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제3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성경이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유일한 권 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4절과 5절은 이러 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의 저 자이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내증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야말로 우리 의 신앙고백 바로 그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프린스턴 학파에 전승되었다. 구프린스턴 학파는 알렉산더, 찰스 하지, 아키발드 하지, 벤자민 워필드로 구성된 학파 이다. 이들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감된 인간 저자들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 있는 인간의 책이라고 분명히 믿었다. 특별히 워필드의 성당 창문 비유에 대한 반박은 그의 무오의 신앙을 잘 설명하여 준다. <sup>13)</sup> 워필드는 성령과 인간 저자들의 관계를 성당의 색유리창을 통과하는 빛의 비유로 설명하여 인간 저자들의 오류가 불 가피하게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성당 창 문의 색유리를 통과하는 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지만 그것이 통과하는 유리의 색조에 물들여지는 것처럼 인간의 심혼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그것이 주어지는 통로인 인간의 개성에 채색되어 나오는 것이 분명하며 바로 그 정도 만큼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고 사 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건축가에 의해 색유리창의 색깔이 성당 속으로 밀 려 들어가는 빛에 본래의 색소와 색칠을 정확하게 수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면 어찌겠는가?" 워필드는 성당 색유리창 비유를 통한 성경 유오 주장을 반박한 후 성경의 무오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잘 밝혔다.

필자는 개략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유기적 독자영감과 무오는 교회의 전통임을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도적 흐름이 그 려다는 것이지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사에는 이같은 성경관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 있다. 특히 16세기 계몽 시대로부터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며 현대로 내려올 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한 때는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금방 시들고 떨어지고 썩을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 三. 결어

이같은 성경관에 비추어 볼 때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 번역 원칙부터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유기적 독자영감과 무오성을 믿는다면 형식일치의 번역을 해야한다. 100% 일치야 시킬 수 없다 할 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원문에 있는 단어들을 살리며 성경 원문의 시제나 태(態)들을 살리며, 할 수만 있으면 어순들이나 접두모음의 뜻까지도 살려서 번역을 해야 한다. 그런데 표준새번역 성경은 내용일치의 번역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성경 원문을 나름대로 가감 삭제 삽입을 하였으니 우리의 성경 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큼 삽입과 삭제가 이루어졌는가는 광주개혁신학연구원 교수진이 발표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우리의 성경관에서 볼 때 표준새번역성경이 원문의 단락 표시를 위하여 표제어를 붙여 놓은 것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 역시 말씀에 대한 가감행위이다. 일단 원문에 표제어를 붙여놓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의 풍요로움을 이 표제어의 범위 안으로 한정시켜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정일획은 천하보다 중한 것이다. 덧붙여 요즘 유행하는 주석성경도 알고해볼 필요가 있다. 평신도들은 주석성경이 마치 주석의 표준이요 오류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일단 주석성경을 손에 들면 성경 연구에 필요한 고통과 노력을 피하기 위해 주석부터 읽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역시나 그 주석성경이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고 성경해석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개인 연구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교회당에 까지 가지고 와서 예배시간에 읽는 것은 절제함이 줄 으리라 생각되어진다. 아마도 주석성경에 있는 내용과 설교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배시간 내내 의혹과 갈등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내용일치의 번역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가감한 표준새번역성경을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숙한 권위가 훼손될 것이다. 특히 표준새번역 성경은 사본상의 상일치와 해석상의 불일치를 난외주에 남발하여 실으므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의식을 약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성경 원문을 가감함이 자유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글 자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애쓰는 모든 것은 허위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뜯어 고쳐버리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겠는가. 더구나 그 글 자 하나가 뭐 대단하길래 교회를 가르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겠는가?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키고 해석하려는 옹고집보다는 적당한 타협주의가 지배할 것이다.

결국 표준새번역성경 같은 성경이 유행하는 경우 실오라기 하나라도 섞일가 조심하는 신학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한낱 철학논쟁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성경을 위한 논쟁, 신학을 위한 논쟁은 적으로 착각하고 풍차를 향하여 돌진했던 동키호테식 도로(徒勞)가 되고 말 것이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학논쟁은 무의미 하고 인간학 논쟁, 정치적 논쟁 철학 논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표준새번역성경이 방치되면 신학 논쟁, 성경논쟁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화술 좋고 품위 좋은 사람들의 이론이 유행할 것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가 될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이 내용된다면 목회자들의 설교의 목적과 가치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목회자들은 내용일치의 설교를 한다는 구실아래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평신도들도 유오한 성경 원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에 전적으로 순종할 의무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기를 그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전달보다는 정치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강연이 될 것이다. 결론은 사람들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함인데 유오한 성경을 가지고 세속 철학이나 이야기하고 정치 평론이나 하는 설교를 누가 듣겠는가 그러니 새번역성경을 방치하면 얼마가지 아니하여 서구교회처럼 교인들은 친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당은 텅텅비게 될 것이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염된 성경때문에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속화 될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 정신대로라면 신구약 성경을 함께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신약만 가지고 다니거나 은혜되는 몇 부분만 발췌해서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이다. 가감할 바에야 그 정도에 까지 가지 않겠는가 필자의 기우어기를 바란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무오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글자 하나 일정일획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번역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며 살자. 갈수록 배교의 영이 역사하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도립(倒立)을 같이 하자.

---

## 각 주

- 1) The Foundation of Biblical Authority, ed by James M Boice 황영철 역 「성경의 무오성」 (서울, 생명의 말씀사) p.89
- 2) 박형룡 「기독교 현대 신학난제선평」 서울, 백함서원,1975. pp30~35
- 3) Ibid,200p
- 4) Ibid, P241
- 5) Edward J.Young. Thy word is Truth 김수민역 「주의 말씀은 진리 니 이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pp.21~22
- 6) Ibid, pp.25~26
- 7) 박형룡 「교의신학 제1권 서론」 서울, 은성문화사,1975. pp 305~314
- 8) 권성수 「성경해석 학」 서울, 총신대 학출판부, 1991. PP.79~85
- 9) Challenges to Inccrancy ed by Norman L. Geisler 권성수 역 「성경무오:도전과 응전」 (서울, 엠마오,1988) pp5Q6~530.
- 10) Norman L. Geisler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Bible 김남준, 김철 공역 서울, 솔로몬,1003.pp35~38
- 11) 노르만 L.가이슬러, o p.cit.p569
- 12) Willlam Hendriksen Survey of The Bible, 김경선 옮김 「성경개관」 서울, 아가페, 1984, p.20
- 13) Inerrancy and Hermeneutic ed by Harvie M.Conm, 정광욱옮김 「성경무오와 해석학」 서울, 엠 마오 pp.48~64